

---

## 영국의 평성가—근대 성가의 사례별 연구

---

David Hiley, "Plainchang in England:  
A Case Study in Modern Chant Research

홍 세 란 譯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역임 · 현재 유학 중)

음악학 연구에 있어서 필자의 전공 영역은 평성가인데, 영국의 평성가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할 일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은 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 영국의 음악사는 빈번하게 활발한 토속 전통과 수입된 문화가 혼합되어 왔으며, 영국이 자신의 음악적 전통을 수출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영국이 음악을 수출한 예가 대략 3~4개 정도 기억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 (1) 15세기 초반 던스터블(Dunstable) 시대의 이른바 *Contenance angloise*;
- (2)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와 북독일에서 유행한 영국 건반음악과 기악합주 음악;
- (3)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모방된 발라드 오페라;
- (4) 18세기 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대중화된 헨델풍의 오라토리오.

영국의 평성가 역사는 또한 주로 수입된 전통들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음악 상품들의 발원 지점과 그 목적지가 된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사한 특성의 전통 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연구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필자의 상업적 용어 사용의 이해를 바란다). 이 원고에서 필자는 영국의 사건들을 매우 빠르게 훑어 보면서 적절한 연구 기법들을 요약하려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유럽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 1. 7~8세기

597년에 영국의 이교도인 앵글족과 색슨족을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사들이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 영국으로 파견되었다. 그 선교사들의 지도자가 <어거스틴>(Augustine)이었다. 그레고리 교황과 <어거스틴>이 나눈 편지들은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후에 작가들은 당시의 사건들에 관한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731년 <비드>(Bede)의 *Ecclesiastical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은 로마와 영국의 접촉에 관한 위의 사건과 그 후의 정보로 가득 차 있다. <비드>는 영국으로 건너간 노래하는 선생들과 로마를 여행한 영국인들, 특히 노섬브리아(Northumbria)의 <몽퀴머스>(Monkwearmouth)와 Jarrow의 수도원장인 <베네딕트 주교>(Benedict : 689년 사망)에 관하여 기록을 남겼다. <베네딕트>는 수도승이었는데, 로마를 여섯 번이나 여행하였고 많은 서적들과 다른 보물들을 노섬브리아로 가지고 돌아왔다. 로마를 방문했던 또 다른 성직자는 <에그버트>(Egbert : 732-766년 요크의 주교)였는데, 그는 로마에서 실제로 본 성 그레고리(Saint Gregory)의 “안티포너”(antiphoner)와 미사 경본(經本)에 관해 쓰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어거스틴>에 의하여 영국인들에게 알려졌다. 이것은 그레고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현존하는 안티포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예이다. 그 영국인들은 로마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순수한 형식으로 로마의 관습들을 신망있게 보존하며 지속해 왔다고 믿었다.

8세기에 영국의 교회, 특히 노섬브리아의 교회는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럽의 지역에 선교사들을 파견할 수 있었다. 가장 유명한 영국 선교사는 <성 보니페이스>(Saint Boniface : 754년 사망)였는데, 그는 때때로 ‘독일의 사도’로 불리었다. 그는 웨식스(Wessex) 출신의 색슨족이었는데, 중부 독일과 바바리아(Bavaria)의 주민들을 개종시키는 일에 앞장 섰으며, 후에 프랑크 왕국에 교회를 조직하였다. 그 외에 중요한 또다른 인물이 한 사람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는 바로 <엘퀸>(Alcuin, 804년 사망)으로 요크 지방의 성당 부속학교의 학생으로서 후에 성장하여 그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프랑크 왕국의 왕(후에 황제가 됨)인 <샤를마뉴>(Charlemagne)는 <엘퀸>을 궁정으로 데리고 가 그를 교육과 전례 분야에 관한 왕국의 수석 고문으로 삼았다. 이것이 대륙에 영향을 미친 영국 전통의 또 다른 한 예이다.

이와 같이 7~8세기에 일어난 사건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우리는 751-768년의 프랑크 왕국의 왕인 <피핀>(Pippin)과 그의 아들 <샤를마뉴>(768-814년)가 그들의 영토에서 로마 관습에 따라 교회 예배를 표준화하려

는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프랑크 궁정과 교황 교회 사이에 8세기 후반부에 많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역시 <보니페이스>, <엘퀸>과 같은 인물들의 활동을 통하여 로마 방식의 성가부르는 방법(chanting)이 알려졌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우리는 프랑크 왕국에서 로마 성가의 두 가지 근원, 즉 로마 자체로부터 유입된 것과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수입 경로의 가능성- 하나는 로마, 또 다른 하나는 영국-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국, 로마 또는 프랑크 왕국 출처의 실질적인 문헌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용의 가능성과 영향에 관하여 비교나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사를 위한 성가 가사를 담고 있는 가장 초기의 문헌은 8세기 끝무렵으로 연대가 매겨진다. 그것은 북프랑스에서 쓰여졌고, 어떠한 음악적 기보가 없이 노래되는 가사만을 담고 있다. 그 이후 수백년간 현존하는 모든 다른 문헌들은 프랑크 제국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로마나 영국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9세기 말에 가서야 그 성가들이 기보되었다. 그러므로 불행히도 8세기에 프랑크 교회에 끼친 영국의 영향을 입증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 프랑크인들이 로마 성가 또는 보통 알려진 대로 '그레고리안 성가'를 배운 경로에 관하여 최근 수년간 많은 토론이 있었다. 이 경로에 영국이 기여하였다는 가능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음악적 기보가 된 영국 평성가 필사본들이 제일 처음 기보된 시기로 넘어 가도록 하겠다.

## 2. 10세기와 노르만인의 정복(1066년)까지의 11세기

유럽 대륙의 교회는 9세기와 10세기에 계속 성장한 반면, 영국은 스칸디나비아 민족들의 침략으로 황폐되었다. 단 한 곳의 교회나 수도원도 전례성가가 연주되는 상태로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믿을만하다. 단지 10세기 후반부에 서야 교회가 종교적 예배와 음악을 위한 문헌들을 제작하기에 충분히 복구되었다. 정치적 권력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이러한 종류의 협력의 발달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프랑크 왕국에서는 <피핀>과 <샤를마뉴>가 지도자였고, 영국에서는 <에드가>(Edgar) 왕이 지도자였다(기독교 예배가 유럽의 주위 지역에 소개된 곳마다 또는 교회 복구가 수행되는 곳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에드가> 왕은 3명의 대주교들, 즉 <던스턴>(Dunstan), <오스왈드>(Oswald), <에델월드>(Ethelwold)의 도움을 받았다. 이 세명 중에서 윈체스터(Winchester)의 <에델월드>(984년 사망)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영국에서 음악 필사본들을 사보하는 것을 부추긴 첫번째 영국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윈체스터의 성가대 지휘자 <울프스탄>(Wulfstan)의 선생이었고 유명한 2성부 오르가눔 선집을 만들었는데, 그 선집은 파리 노트르담의 <레오니누스>(Leoninus)가 만든 *Magnus Liber* 이전의 가장 중요한 전례 다성가 자료였다. 10세기 후반부에 <에텔월드>와 그의 동료들이 영국의 새롭게 수리된 수도원들과 성당들에서 노래된 성가를 어디에서 빌어오거나 배웠는지를 알아 내는 일이 중요하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영국과 다른 나라들 출처의 음악 필사본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관하여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지난 세기에 걸쳐 학자들이 발달시킨 기법들은 필사본들의 유사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걸쳐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두 필사본이 많은 결정적인 점들에서 일치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방법으로 그 필사본들이 역사적으로 몇 가지 면에서 연관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아마도 같은 교회 또는 직접적인 영향의 맥락에서 연결된 교회들의 것임). 간략히 이러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

- (1) 서체의 양식, 특별히 음악 기보법의 양식
- (2) 성가들의 선곡
- (3) 가사와 음악의 다양한 읽는 법

여기에서 음악적 기보의 다른 형태를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질문의 두번째, 세번째 방법으로 곧바로 진행하겠다. 자연히 각 필사본의 완전한 내용이 모든 다른 필사본들에 대조 조사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사실상 실용성이 없다. 한 권의 “그라듀얼”(Gradual, 미사를 위한 성가가 실림)은 800항목까지 신고 있고, 또 한 권의 “안티포너”(Antiphoner, 성무 일과를 위한 성가가 실림)는 6,000항목까지 신고 있는데, 수백 권의 중세 그라듀얼과 안티포너가 전해지고 있다. 작품들의 선곡을 비교하기 위하여 단지 10권의 그라듀얼에는 대략 8,000항목의 자료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10권의 안티포너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대략 60,000이 될 것이다. 만약 그 비교를 통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컴퓨터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작업은 느리고 지루할 e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점에서 이러한 문헌 속의 성가 선곡은 비교적 일정하다. 그들은 전례의 일정한 부분들에서만 다양한 어떤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알렐루야(Alleluia), 시퀀스(Sequence), 트로프(Trope)의 선택에 있어 그러하다. 이러한 양식의 성가 사용은 8세기와 9세기에는 표준화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역 교회들은 그들 자신의 선호와 관습을 발달시키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며 그들 자신의 새로운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차용과 영향의 경로를 규정하기 위

하여 필사본들을 서로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사곡들을 포함한 경우 알렐루야, 시퀀스, 트로프들을 살펴보고, 만약 비교된 그 문헌들이 안티포너라면 유사하게 다양한 성무일과 성가들을 살펴게 된다.

[예 1] *O laudabilis rex*를 시작하는 글로리아 트로프 세트

Paris 1240, fo. 41 <sup>v</sup>	Paris 1121, fo. 43 <sup>v</sup>	Oxford 775, fo. 70 <sup>v</sup>	Paris 10508, fo. 37 <sup>v</sup>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O laudabilis rex	O laudabilis rex	O laudabilis rex	O laudabilis rex
LAUDAMUS TE Adonay benedicte	Adonay benedicte	Adonay benedicte	Adonay benedicte
BENEDICIMUS TE O adoranda	O adoranda	O adoranda	O adoranda
ADORAMUS TE Glorificande	Glorificande	Glorificande	Glorificande
GLORIFICAMUS TE O bone rex (W)	Pax salus et vita (W)	Pax salus et vita (W)	Rex seculorum domine
GRATIAS AGIMUS Plebs tua (W)			
PROPTER MAGNAM Sanctam maiestatem (W)	Sanctam maiestatem (W)		
DOMINE DEUS Pax salus et vita (W)	Da pacem famulis (W)		
DEUS PATER Da pacem famulis (W)	Aeternam cum sanctis		
DOMINE FILI Pioque tuo amore	Qui solus habes (W)		Misertus esto
IESU CHRISTE Aeternam cum sanctis			
DOMINE DEUS Magnus et fortis			
AGNUS DEI Rex pacificus (W)			
FILIUS PATRIS Redemptor universi (W)			
QUI TOLLIS Suscipe nunc (W)	Rex seculorum domine		
QUI TOLLIS		Rex seculorum domine	Pax xalus et vita (W)
SUSCIPE DEPRECATIONEM Qui super astra (W)	Caeli terraeque		Nobis in terris
QUI SEDES O decus omnium (W)			O eterni sapientia
QUONIAM TU Eros poli (W)		Aeterni sapientia	Tu lux via
TU SOLUS DOMINUS Prolis O rutilus (W)		Tu lux via	O virtus honor
TU SOLUS ALTISSIMUS Patri equalis	Audi clemens		Sceptrum tuum (+ prosula)
IESU CHRISTE Qui solus abes (W)		Rex regum (+ melisma)	
CUM SANCTO SPIRITU Qui unus idemque (W)			
IN GLORIA DIE			

이제 음악적 변형들이 참작된 3번째 비교 방법의 단순한 예를 보이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세기 동안 평성가가 기억에 의존하여 구전되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교회와 다른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세밀한 작은 차이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별한 한 교회를 위하여 필사본이 만들어질 때, 필경사나 편집자는 이미 존재하는 필사본을 단순히 그대로 사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억, 그리고 그의 개인적 판단과 기호에 의존하였던 듯 싶다. 예를 들어 안티폰 *Ante me non est formatus*를 보자.

[예 2] *Ante me non est formatus*<sup>1)</sup>

1 8 4

**A** Nte me \* non est formá-tus De- us, et post

me non e- rit : qui- a mi- hi curvá-bi- tur omne ge-

nu, et confi- té-bi- tur omnis lingua. E u o u a e.

권위있는 중세 필사본에서 만들어졌으며 1934년 솔렘(Solesmes) 수도사들에 의하여 출판된 근대판인 *Antiphonale monasticum*에서 위의 성가는 D음으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첫번째 악구에서 선율은 G음에서 치음으로 쉬고, 그 후 딸림음인 A음에 도달한다. 두번째 악구는 반복적으로 A음으로 되돌아가고, 세번째 악구는 C음으로 하향한다. 마지막 악구는 D음으로 끝나기 전에 세번째 악구를 되풀이한다. 이제 이 안티폰을 싣고 있는 중세 영국 필사본을 살펴보고자 하자. Bb 조표 외에 큰 차이점은 그 작품이 D음이 아니라 E음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이다. 중간 악구들은 두 가지 판이 모두 같다.

두 판 사이에 이와같은 불일치점은 그 성가의 주요 구성 요소, 즉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변형곡들은 작은 세부 요소에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에 보여진 다른 안티폰인 *Levabit Dominus signum*에서 이와 같은 몇몇 작은 차이점들을 볼 수 있다.

<sup>1)</sup> [예 2]와 뒤에 따라 나오는 [예 3]의 원본 필사본은 [예 4]에 나와 있다.

[예 3] *Levabit Dominus signum*

Ad Bened.  
Ant. 1 g

**L** E-vá-bit \* Dómi-nus signum in na-ti- ó-nibus,  
et congre-gá-bit dispérsos Isra- el. E u o u a e.

간략히 말하자면 이와 같은 비교에 의하여 윈체스터의 <에델월드>와 그의 동료들이 970년대와 980년대에 영국에서 교회 예배를 재건하기 원했을 때 특별히 한 북부 프랑스 수도원을 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그것은 북동 프랑스의 솜(Somme)강가의 유력한 코비(Corbie) 수도원인데, 지리적으로 영국의 남부 해안과 멀지 않았다. 유럽 전역의 성가 문헌들을 비교해 보면 윈체스터는 코비와 지속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예 4] 안티폰 *Ante me non est formatus*과  
*Levabit Dominus signum*의 원본 필사본

Levabit Dominus signum in nationibus; et congregabit dispersos Israel. Et ante me non est formatus deus. Et ante me non est habitaculum habitantis. Et ante me non est habitaculum habitantis. Et ante me non est habitaculum habitantis.

이와 같은 지역 전통의 비교들은 중요한 역사적 차원을 갖는다. 성가 전달의 구전된 선법 또는 기록된 선법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어떠한 토론도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차이점들을 감안해야 한다.

### 3. 노르만 정복(1066년)과 그 결과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윈체스터에서 확립된 평성가 전통이 영국의 나머지 지역에서 뒤를 이어 계속되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캔터베리(Canterbury), 워체스터(Worcester), 더램(Durham) 출처의 더 후기 영국 문헌들에서 윈체스터 전통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066년에 영국은 노르만인들에게 정복당했다. 이것이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일단의 군사들에 의한 일련의 몇 가지 운동들 중 유일한 한 가지였다. 10세기에 그들은 북프랑스의 넓은 지역을 정복하였는데 그곳은 '노르망디'(Normandy)로 알려졌다. 이 시기의 말엽에 이르러 그들은 문명화되었는데, 즉 11세기 도입 시기로부터 노르망디에는 수도 생활의 큰 부활이 있었다. 노르만인들은 군사적으로 힘이 우세하였으나 영국에서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약세를 이용하였다. 영국을 정복한 후 새로운 왕 <윌리엄>(William)은 거의 모든 영국의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들을 노르만인들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11세기 후반과 12세기에 기록된 많은 성가 문헌들이 노르만 교회들의 영향을 보여주거나, 어느 정도 노르만 문헌의 직접적인 사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동일한 비교기법들을 사용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건들의 형태를 재구성해볼 수 있다.

실제로 몇 가지 새로운 경로의 영향이 있었다. 필자가 기록하였듯이 노르만인들이 '문명화'될 때 노르만 공작인 <리차드>(Richard)는 중부 프랑스 디종(Dijon)의 대주교 <윌리엄>을 초청하여서 노르망디에 교회를 이전대로 독립하여 세우도록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노르만 수도원들(Fecamp, Jumieges, St-Evroult, Mont St-Michel에 위치함)에 제일 먼저 디종의 평성가 실행이 소개되었고 그 후 영국(Westminster, Gloucester, Evesham, Winchcombe, Abingdon 그리고 Muchelney)에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노르만 수도원인 베크(Bec)는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있게 되었다(정복 이후 캔터베리의 처음 두 대주교들은 베크 출신이며 또한 교황 알렉산더 2세도 베크 출신임). 베크의 평성가 실행 방법이 Battle, St. Albans, Canterbury, Worcester, Whitby, Durham, 그리고 Coldingham에 소개되었다. 또 다른 수도원 전통은 노르만인들과 거의 관계없다는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 11세기에 모든 프랑스 수도원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부르고뉴(Burgundy)의 <클뤼니>(Cluny)였다. 우리는 <클뤼니>의 평성가 실행 방법이 Lewes와 Pontefract에 소개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에서 노르만 방법 실행의 의무는 때때로 반대를 일으켰다. 예를 들면 Glastonbury에서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성가부르는 것을 거부하였고, 노르만 수도원장은 그들에게 군인들을 보냈다. 한 수도사가 살해되었고, 다른 몇몇 사람들은 부상 당하였다. 이 사건들을 기록한 연대기 작자에 의하면 그 수도사들은 평성가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즉 그 성가는 신성한 그레고리 교황의 신봉자들로부터 전해내려온 것이었다. 어거스틴이 영국에 온 이후, 그의 선교활동 기간이며 영국과 로마가 '특별한 관계'였던 5세기는 여전히 소중히 여겨졌다.

이러한 영국 평성가 역사에는 두 개의 짝막한 부분이 더 있다.

#### 4. 솔즈베리(Salisbury)의 평성가 : '새림(Sarum)'

영국 교회의 더 크고 중요한 부분은 캔터베리의 대주교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영국 성당들 중 절반은 또한 수도원이었다는 것이 바로 영국 교회의 특징이었다. 수도사들은 다른 교회의 성직자들과 다른 방법으로 종교적 예배를 수행하였다. 캔터베리는 '수도원적'인 성당들 중 하나였다. 그 예배 형식이 영국의 대다수의 다른 교회들에 의한 모형으로서 택해질 수는 없다. 만약 보통의 소교구의 교회가 그 교회 예배를 위한 모형을 필요로 한다면, 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음악이 있는 몇몇 예배 문헌들을 얻기 원한다면 누구에게서 가능할 것인가? 캔터베리는 어떠한 도움도 제공할 수 없다.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한 교회가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솔즈베리였다. 솔즈베리는 윈체스터와 그리 멀지 않은 영국의 남부에 위치해있다. 1220년대에 아름답고 새로운 성당이 <리차드 푸어>(Richard Poore) 주교의 지휘 아래 고딕 양식으로 그곳에 세워졌다. 같은 시기에 전례 전체가 개정되고 문헌으로 사보되었는데, 예배를 연주하는 방법에 관하여 훨씬 자세한 지시를 하고 있다. 대략 이 시기에 영국 왕들의 궁정교회는 이 형식의 예배를 채택하였다(아마도 <푸어> 주교와 궁정 신부들 사이에 어떤 협력이 있었을 것이다).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옥스포드보다 더 후기) 대학가에서 직업 필경사들은 고객들을 위하여 솔즈베리 용법에 따라 문헌들을 사보할 수 있었다. 솔즈베리 성가문헌들은 영국 전역에 널리 퍼졌는데 주로 남부 뿐 아니라 북부와 또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에조차 전파되었다. 중세로부터 전해지는 영국 평성가 문헌들 중 90% 이상이 솔즈베리 양식의 것이다.

영국의 평성가 역사에 대한 이 장은 1549년 종교 개혁에 의해 잔인하게 끝맺는다. 수천권의 문헌들이 불태워지고 교회들은 적대시되고 수도원들은 파괴되었다. 하나 또는 둘의 평성가들이 영어 가사로 개작되고 성공회 교회에서 불리었다. 그러나 이 시기로부터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평성가는 영국에서 '비밀스런' 존재가 되었다.

## 5. 성공회의 부흥

19세기 후반에 영국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더 가까운 관계를 이루려는 유력한 운동이 있었다. 이것의 부분으로서 교회 예배에 더 유려한 의식을 재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중세시대의 영국 출처의 평성가 문헌들을 포함한 오래된 예배 문헌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몇몇 성가 문헌들의 복사본들이 만들어졌으며, 많은 가사들이 학구적인 간행본들로 번역되고 출간되었다.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평성가 학자는 실제로 영국 교회의 주교이고, 교회 예배의 개정에 대한 공식적 토론에 깊이 연루된 Truro의 주교인 <프레르>(Walter Howard Frere)였다. 놀랍게도 그는 교회 경영과 전례 개정의 분야에서 그가 이룩한 많은 작업을 고려해 볼 때 많은 문헌들을 남긴 다작의 학자였다. 영국 국립 도서관에 있는 그의 성가문헌들의 목록들, 즉 그의 두 가지 복사본인 "Graduale Sarisburiense"와 "Antiphonale Sarisburiense"는 특히 그 책들에 레퍼토리와 성가 선율 분석 간에 비교의 이론들을 설명한 긴 서문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성가 지식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된다. 필자는 스스로를 몇 세대가 동떨어진 그의 보잘것 없는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단지 한 의견에 있어서 필자는 <프레르>와 겨룰 기회가 있었다. 대학의 선생으로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전달할 수 있다. 필자의 세대 동안 영국에서 평성가 학식은 연구와 가르치는 대학 체계에 속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영국 성가를 조사하기 위한 많은 자국이 연구로부터 다성음악으로 옮겨지고 있다. 영국 중세 다성음악의 많은 부분이 교회 예배를 장식하기 위하여 고안되었고, 평성가 테노르에 만들어지기조차 한다. 학자들은 교회 다성음악이 착상되고 기능을 하게 되는 전후관계를 이해하기 원하며 따라서 또한 전례의 평성가를 조사해 왔다. <해리슨>(Frank Harrison)의 명저 *Music in Medieval Britain*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룬 몇개의 장들을 싣고 있다.

또한 또 다른 면에서 필자와 동료들은 <프레르>와 다르다. 그는 그 당시에 교회음악을 증진시키려는 욕구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자극되었다. 이것은 또

한 다른 위대한 연구자들, 즉 솔렘의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이 평성가에 몰두하게 한 동기였다. 오늘날 우리는 실용적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음악적인 이유를 위하여 우리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영국의 관점으로부터 예시한 바와 같이 평성가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영국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영국 역사의 비판적인 시기의 역사적 발달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중요한 세부적인 것을 덧붙임으로써 기여해 왔다. 그것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는 연구기법의 발달을 위한 시범적 예를 제공하였다. 영국 학자들은 또한 평성가 연구를 교회 다성음악 연구와 통합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 다른 이들보다 더 심도있게 진보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룩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언젠가 우리를 여전히 미궁에 몰아넣는 질문들 중 몇 가지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597년에 <어거스틴>이 영국으로 가져온 성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두 세기가 지난 후 요크 지방의 엘킨이 샤를마뉴의 궁정으로 오기 전에 어떤 성가를 알았을까? 또 한 세기 후 만약 윈체스터의 <윌프스턴>이 그의 위대한 오르가눔 선집을 위한 기초로서 코비의 평성가를 택했다면 그는 코비로부터 오르가눔의 실행 그 자체를 택했을까? 13세기 초반에 어떻게 솔즈베리 성가가 이른바 영국 섬의 ‘국가적’ 평성가가 되었을까?

많은 것이 해결되었으나 또한 많은 해결할 일이 남아있다. 필자에게 관심있는 만큼 여러분들 자신이 이러한 의문점을 발견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의를 기울여 준 것에 관하여 감사를 표한다.